

타락한 세계에 대한 타락한 구원의식

# 해바라기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고양이 울음이 아니다.  
이 노래는 해바라기에서 나옵니다. 저 해바라기 꽃 속에서  
수천 수만의 어머니가 걸어나옵니다. 그들은 둥글게 손잡고 춤추며 노래합니다.”

기획/ 열린무대기획실  
 작/ 장정일  
 연출/ 구연철  
 무대감독/ 황성현  
 무대미술/ 김경화  
 이장주  
 음악감독/ 이세호  
 작곡/ 정은스튜디오  
 조명/ 박성영  
 음향/ 윤현미  
 의상디자인/ 정미연  
 수화지도/ 박미란  
 조연출/ 박현주  
 출연/ 배진만  
 안성애  
 정희선  
 정은수  
 김영림  
 김수진  
 엄자선



열린무대  
 스킵장  
 세원백화점  
 영문전철역



● 도외주신 분들 ●

ESS 외국어학원(부산대점) · 514-6116, 에르고기획(463-0208~9), 박준규, 박현미, 이길, 박지현, 이영택, 장성규, 김미라, 문중환

## 이제 갈 길을 간다

“98년 첫걸음을 <해바라기>로 시작한다.  
정일형은 영어판, 불어판, 일어판으로 번역될 수 있는  
세계적인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자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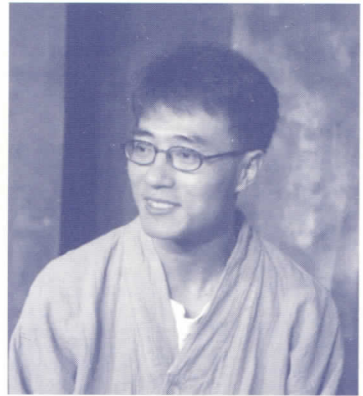
### 97년 올해의 연극인 상 수상

지난 12월에 부산연극협회에서 '올해의 연극인 상' 중 스텝 부분상을 수상했다.

상이란 받고 나면 기분 좋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말 나 혼자 잘 나서 아니면 그 어느 해보다 뛰어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상을 수상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극단의 모든 단원들이 묵묵히 자신의 일에 열의를 가지고 노력한 성과물로, 나는 이 상을 식구들에게 돌리고 싶다.

### 97년 올해의 좋은 연극상

지난 12월에 부산연극평론협회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좋은 연극상' 신인 연출가상에 현철이가 수상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연극을 접하는 평론가들이 모여 97년 한 해를 되돌아 보며, [장정일 희곡 시리즈 I-실내극·어머니·실크커튼은 말한다]에서 탁월한 연출력을 발휘한 현철이를 택했다. 나 역시 같은 마음이다. 현철아, 정말 수고 많았다.



기획 심창신

### 98년 'IMF' 와 '가난'

요즘 모든 사람들이 국제통화기금 체제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으로 가득하다. 연극을 하고 있는 우리도 그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다. 무대장치에 있어 목재, 도구, 페인트 등. 극장 생활에 있어 시장 바구니도 날로 가벼워진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너무 연연하진 않는다. 박종화의 '이제 갈 길은 간다'를 부르며 오로지 우리의 갈 길을 갈 뿐이다. 지금은 [장정일 희곡 시리즈2-해바라기]다.

### 98년 [장정일 희곡 시리즈2]

98년 첫걸음을 <해바라기>로 시작한다. 정일형이 지난 작품을 보고 난 후 선뜻 [장정일 희곡 시리즈2]로 작품 <해바라기>를 내 놓으셨다. 정일형은 영어판, 불어판, 일어판으로 번역될 수 있는 세계적인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자부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습 중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끝까지 작품에 참여해 준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새해 첫 소망이 있다면 <해바라기>가 97년의 영광과 같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를. ....



작 품 론

## 신성의 타락이 성적 타락으로

『해바라기』는 극단 <열린무대>가 장정일 시리즈 2탄으로 무대에 올리는 장정일의 최근 창작희곡이다. (세계의 문학 1996년 겨울호 게재)

극단 <열린무대>는 지난 해에 장정일의 희곡 『실크커톤은 말한다』, 『어머니』등 세 작품을 무대화하여 흥행에도 성공한 바 있다. 이번 무대는 그들의 장정일 해석에 대한 자신감과 성공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

<열린무대>의 장정일 해석은 장정일의 세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폐이소스로 재해석함으로써 장정일의 작품이 줄 수 있는 대중적 혐오감을 희석시켜 버리는 긍정적 효과를 낸다. 다 알다시피 장정일의 작품은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반하는 음란성으로 인해 보수적 법률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만큼 그의 작품에서 성적 이미지는 지배적 이미지로 등장한다. 문제는 그의 작품이 사실극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장정일은 『해바라기』의 <작가의 말>에서 “신성의 타락이 성적 타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세태”를 나타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성적 이미지는 신성의 타락을 나타내기 위한 예술적 은유이다. 타락된 것은 성이 아니라 성으로 은유된 세계의 타락이다. 인간관계의 타락, 자본의 예술에 대한 지배, 나아가 창조적 정신의 최후의 수호자이어야 할 작가마저 타락되는 세계의 총체적 타락에 대한 모멸을 성적 타락이란 장치를 통해서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작가의 세계에 대한 모멸감의 극치는 작중의 주인공 ‘김인’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김인은 헨리 밀러의 포르노를 각색해야 하는 자본의 현실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며, 각색자가 아닌 창작자로서 자신의 희곡 쓰기를 갈망한다. 그의 창작희곡 『해바라기』는 대단원에서 완성되며,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손가락까지 잘라버리는 자학과 수많은 여성들과의 난교, 삼녀에 대한 강간, 방화, 살인, 사체유기, 치매걸린 어머니를 유기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반복한다. 하지만 제작자 오유희는 김인을 조종하며, 돈으로

**창작희곡 『해바라기』는 순수한 창조정신의 산물이 아니라 어찌보면 약에서 피어난 약의 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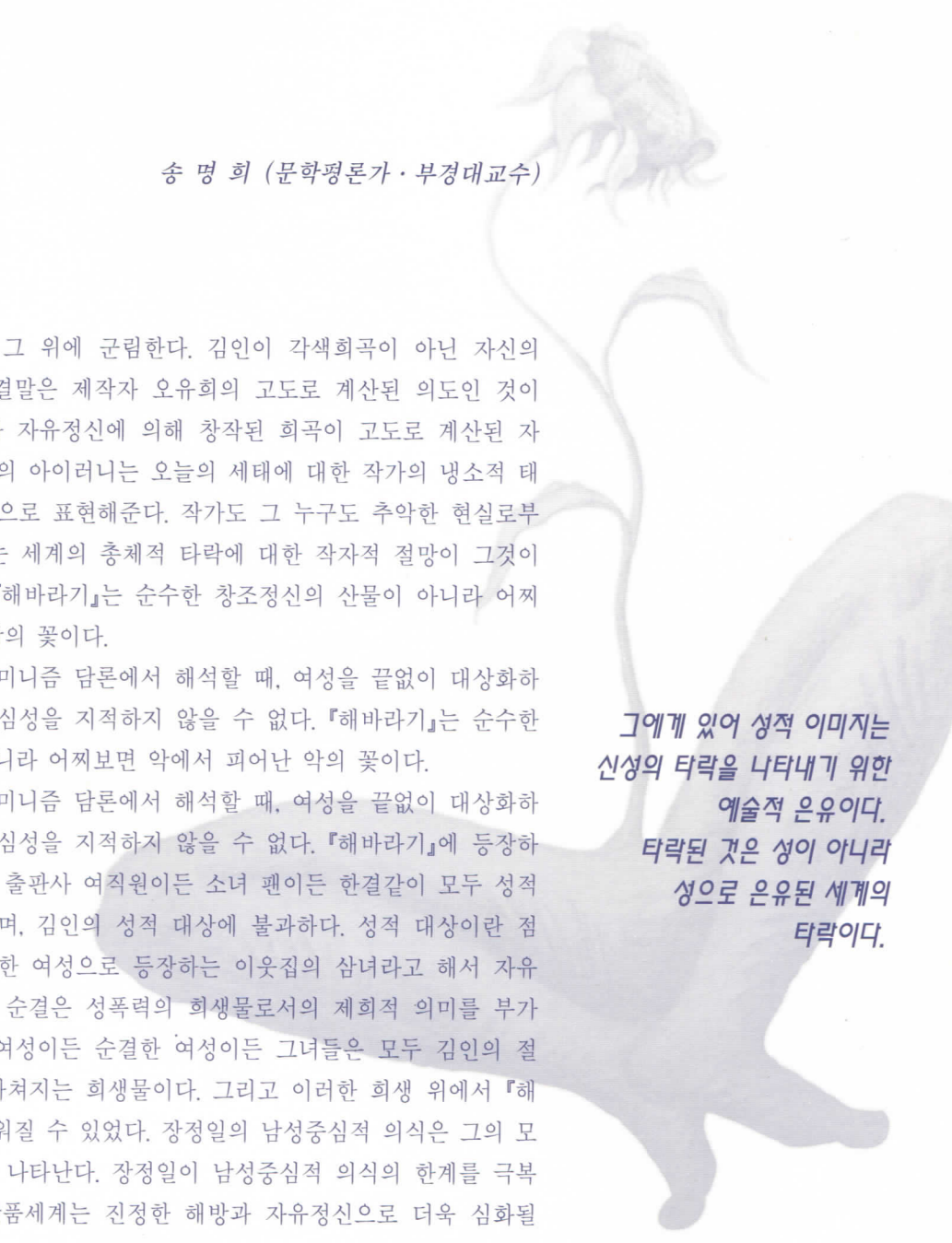
## 꽃 피워진 『해바라기』

송명희 (문학평론가·부경대학교수)

또는 정신적으로마저 그 위에 군림한다. 김인이 각색희곡이 아닌 자신의 창작희곡을 쓰게 된 결말은 제작자 오유희의 고도로 계산된 의도인 것이다. 치열한 자기갈등과 자유정신에 의해 창작된 희곡이 고도로 계산된 자본의 의도라는 대단원의 아이러니는 오늘의 세태에 대한 작가의 냉소적 태도와 자기모멸을 단적으로 표현해준다. 작가도 그 누구도 추악한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세계의 총체적 타락에 대한 작자적 절망이 그것이다. 따라서 창작희곡 『해바라기』는 순수한 창조정신의 산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악에서 피어난 악의 꽃이다.

장정일의 작품을 페미니즘 담론에서 해석할 때, 여성을 끝없이 대상화하고 도구화하는 남성중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바라기』는 순수한 창조정신의 산물이 아니라 어찌보면 악에서 피어난 악의 꽃이다.

장정일의 작품을 페미니즘 담론에서 해석할 때, 여성을 끝없이 대상화하고 도구화하는 남성중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바라기』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여기자든 출판사 여직원이든 소녀 팬이든 한결같이 모두 성적으로 타락한 여성들이며, 김인의 성적 대상에 불과하다. 성적 대상이란 점에서는 유일하게 순결한 여성으로 등장하는 이웃집의 삼녀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녀의 순결은 성폭력의 희생물로서의 제희적 의미를 부가시킬 뿐이다. 타락한 여성이든 순결한 여성이든 그녀들은 모두 김인의 절망과 희망의 제전에 바쳐지는 희생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 위에서 『해바라기』는 붉게 꽃 피워질 수 있었다. 장정일의 남성중심적 의식은 그의 모든 작품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장정일이 남성중심적 의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면 그의 작품세계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정신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에게 있어 성적 이미지는  
신성의 타락을 나타내기 위한  
예술적 은유이다.  
타락된 것은 성이 아니라  
성으로 은유된 세계의  
타락이다.

##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연출 구현철

1

연극적 상상력은 어디에 있는가  
딱딱한 객석과 서먹서먹한 무대 사이  
타자기에 끼워진 A4용지처럼 난타당한다.

2

장정일 작가와의 두번째 만남.  
대구에는 장정일이라는 소년이 산다-라는 기형도의 한 문장처럼,  
그의 작품 속에서 세계의 낯선 속살을 훑쳐보게 되는 것은  
그의 천진스런 영혼 때문이다.  
작품의 재해석과 형상화를 전적으로 맡겨준 그에게 감사한다.

3

세기말의 현실은 여전히  
거친 호흡과 신열을 앓는 악몽이다.  
그것은 고도자본주의 사회의 조작된 문화적 종양에서  
비롯된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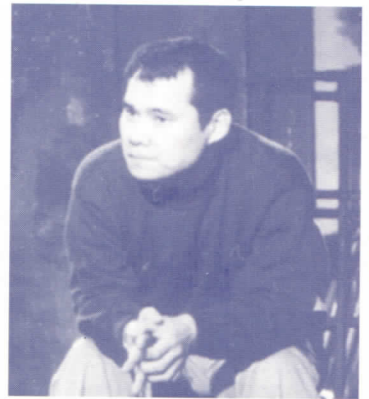
현실과 환상의 경계 지우기.  
그리하여 환멸의 시간들에 긴장된 무대의 공간을 만들어 주기.

5

무대작업이 끝난 새벽  
느닷없이 아침으로 전보 한 통 띄운다.  
병·세·이·상·없·음

감히 우리라고 불렀던 이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타락속에 피는 구원의 꽃 『해바라기』



작가 장정일

**김**인은 강간이나 일삼는 파렴치한이 아니다. 작품 초반의 여기자, 출판사 여직원, 소녀 팬, 장녀, 차녀는 물론이고 후반의 선글라스, 가출 소녀는 모두 어떤 목적으로든 김인과 성교를 하고 싶어하는 여자들이었으며 성적 타락에 이미 깊이 몰든 여자들이다. 순결이 꼭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누구도 강간당할 순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희곡 전체를 통해 강간당하는 여자는 삼녀뿐인데 삼녀만이 강간당할 순수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삼녀만이 고유 명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여자들은 보통 명사나 익명으로 불린다(제작자인 오유희가 이름을 가지는 것은 그녀가 지배자이기 때문). 「무지개」라는 희곡을 쓰고자 했던 그 촌스러운 이름 삼녀만이 순수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는 화육으로 자신을 제공하는 것으로 김인을 구원하는데, 김인이 쓴 희곡 「해바라기」는 삼녀가 쓰고자 했던 「무지개」에 다름 아니다. 하늘 높직이 피어나는 해바라기만이 무지개와 순수한 아름다움을 겨룰 것이므로.

작품의 후반에 등장하는 김인의 희생자들은 강간당할 필요조차 없다. 그들은 단지 처단당할 뿐이며 그 습관적인 탐닉 속에서 김인이 도덕적인 우위에 서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가 경찰에게 체포되는 대단원에 앞서 김인은 단 한번 자신의 무의식적 행위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범죄 동기를

- 
- 1962. 경북달성출생
  - 1977. 성서중학교 졸업
  - 1982. 시를 배우다.
  - 1984. 「언어의 세계」3집에 〈광정간다〉와 4편의 시 발표
  - 1985. 「동아일보」〈실내극〉으로 희곡당선 제7회 김수영문학상 수상
  - 작품. 〈햄버거에 관한 명상〉  
〈어둠이 눈플때〉  
〈너에게 너를 보낸다〉  
〈너희가 찌즈를 믿느냐〉  
〈장정일의 독서일기 1,2,3〉  
〈필프에세이〉등.
-



찾아낸다. 즉 한 여선생이 마지막 교살자가 되도록 배열한 것이 이 작품의 수미일관한 구조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작품의 주제를 반복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다시말해 대단원에 앞서 여선생이 살해당하는 것은 교육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였다. 여선생이 김인에게 목이 졸려 죽기 직전에 듣게 되는 우스개를 생각해보라. 그녀는 "지금 뭐가 먹고 싶니?"라고 묻는 초등학교 여선생에게 1학년 남학생들이 "선생님요!"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다는 김인의 대답을 듣고 <눈물나게 웃는>중에 목 졸려 죽는다.

고약한 울음소리로 김인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고양이>가 <해바라기>로 또 <무지개>로 한 단계씩 심상을 전이시키면서 중국에는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고양이 소리가 들립니다. 고양이 울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김인의 희망과 섬세함을 헤아리는 독자는 김인이 강간이나 일삼는 파렴치한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그는 <신성의 타락이 성적 타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세대>속의 희생자이면서 모성 속에서 신성의 회복을 일관되게 집착한 인물로 드러난다. 그래서 김인은 말하지 않는다. "나는 저 달의 아이... 저 달의 정부, 달의 죄수입니다"라고.

-세계의 문학 1996년 겨울호 "작가의 말"중에서-



나·오·는·사·람·들

김인  
배진만



김인  
유재명



제작자  
안성혜



삼녀  
염지선



여선생·여기자  
정확선



선글라스·장녀  
정은수



차녀·삼녀엄마  
출판사여직원  
김영림



가출소녀·소녀팬  
김수진



만 · 드 · 는 · 사 · 람 · 들

조연출  
백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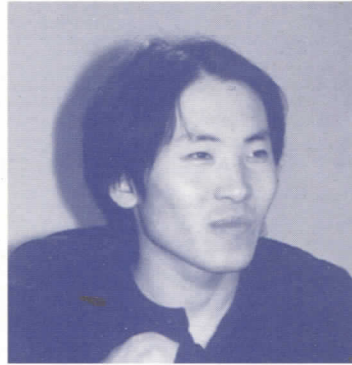
무대감독  
황성현



음향  
윤현미



조명  
박성영



무대미술  
김경화



안무  
김보영



작곡  
장지범



---

도움주신 분

---

수화 · 박미란  
음악감독 · 이세호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사명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는 불안을  
가슴에 지닌  
사 · 람 · 을 · 위 · 해

열린무대36

2000. 5. 27/에르고 기획/열린무대 편집실 · 박지현  
<http://www.openplay.co.kr>